

엔저의 우리 수출기업 영향 조사

최근 엔저의 우리 수출기업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일 수출기업의 경우 92.6%가 수익성 악화와 일본의 수입수요 감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반면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은 그 영향(448개사의 15.6%)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은 10개사 중 약 2개사(21.0%)가 동종업계 일본 기업들의 수출가격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 기업들의 수출가격 인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엔저 대응책으로 대일 수출기업에 대한 환율안정과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R&D지원, 유망시장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장기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R&D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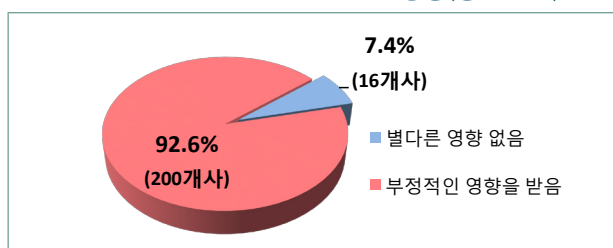
1 엔저의 수출기업 영향 유무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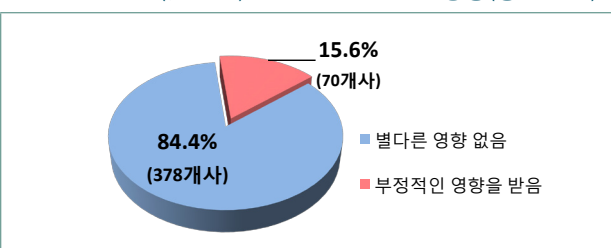
- ☐ 조사내용 : 엔저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 ☐ 설문기간 : 2014. 4. 11 ~ 4. 24
- ☐ 설문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중 2013년도 5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 1,500개사
-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팩스 설문
- ☐ 응답기업 : 664개 업체 (대일 수출기업 216개사,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 448개사)

- ☐ 일본이 주력시장인 수출기업(216개사 응답)의 경우 대부분이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반면,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448개사 응답)은 엔저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일 수출기업들의 92.6%,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들의 15.6%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각각 응답
 -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12월 100엔당 1,288원에서 2014.2월 1,047원으로 엔화 대비 원화가 23.0% 절상되면서 대일 수출기업 10개사 중 약 9개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엔저의 대일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응답비율)



엔저의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응답비율)



2

대일 수출기업에 대한 엔저의 부정적 영향

□ 엔저로 인해 대일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일본의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대일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음

○ 대일 수출기업의 경우 엔화 결제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달러 기준 수출액이 감소

* 대일본 수출의 엔화 결제비중(%) : 58.6('10년)→ 51.9('11년)→ 51.4('12년)→ 46.9('13년)

○ 2013년 들어 일본 내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엔저로 달러 기준 수입액은 감소

* 일본의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기비, %) : -1.1('13.1월)→ 0.8(5월)→ 3.0(9월)→ 4.4('14.1월)→ 3.6(2월)

* 달러 기준 일본의 수입증가율(전년비, %) : 23.3('11년)→ 3.5('12년)→ -6.0('13년)

○ 이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 걸쳐 대일 수출이 두 자릿수의 감소율 기록

* 대일본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3.8('12.11월)→ -18.1(12월)→ -10.7('13년)→ -10.7('14.1~3월)

* 대일본 수출 비중(전년동기비, %) : 6.0('10년)→ 7.1('11년)→ 7.1('12년)→ 6.2('13년)→ 6.1('14.1~2월)

2013년 대일본 수출부진 품목의 수출증가율

(단위 : 전년비 %)

전체	철강 제품	무선통신 기기	반도체	플라스틱 제품	선박	수산물	고무 제품	컴퓨터	자동차
-10.7	-20.1	-23.5	-15.0	-13.6	-46.1	-17.0	-17.7	-42.4	-21.9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중소기업 피해사례 ① 대일 수출 감소

서울소재 중소기업 A사는 연간 약 200~300만 달러의 수산물을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작년부터 엔화 약세와 일본 현지 수산물 수요 둔화로 신규 주문이 급격히 감소,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엔화약세 보전을 위해 일본 바이어에게 수출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바이어들은 아베노믹스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동남아시아 등 신규 거래선 구축을 검토 중에 있으나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엔저의 부정적 영향

□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448개사의 15.6%)이 크지 않은 가운데 일부 주력품목의 경우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경우 수출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85% 이상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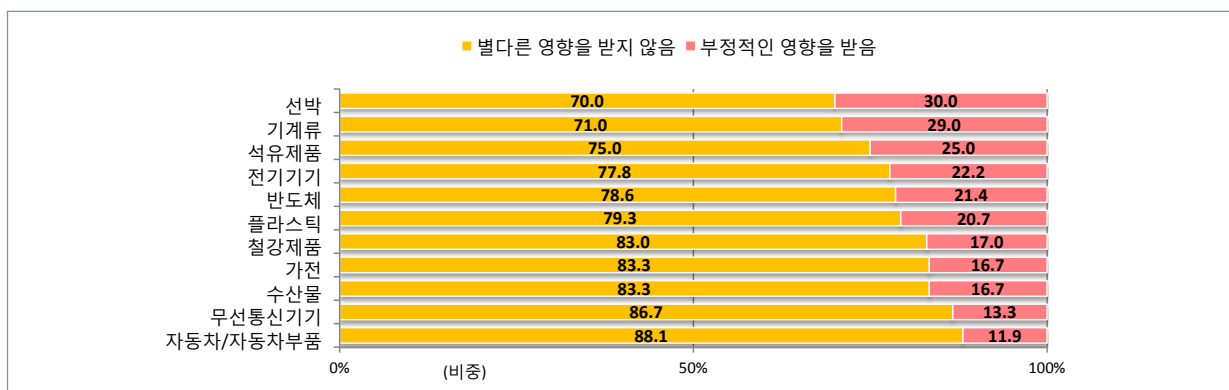
－ 이들 업종은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엔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시사

○ 반면, 선박, 기계류, 석유제품 등은 엔저로 인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25% 이상을 차지

－ 실제로 엔저 기간 동안(일본의 아베 정권 출범 2012.12월~현재까지) 일본의 전체 수출물량은 감소했으나 선박, 석유제품의 수출물량은 오히려 큰 폭 증가세

*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12.12월대비 '14.2월) : (전 품목) -2.0, (기계류) -0.8 (선박) 136.9, (석유제품)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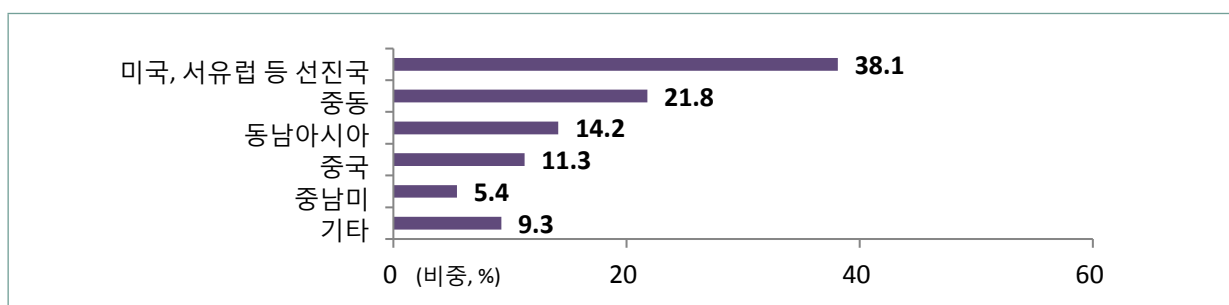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엔저에 따른 품목별 수출 영향(응답비율)



□ 부정적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이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음

○ 이어 중동(21.8%), 동남아시아(14.2%), 중국(11.3%), 중남미(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부정적 영향을 미친 수출 대상국(응답비율)



4

일본 기업들의 가격인하 여부와 우리 업체의 대응

- 제3국(非일본) 주력 수출기업(448개사 응답)은 10개사 중 약 2개사(21.0%)가 동종업계 일본 기업들의 수출가격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기업들의 수출가격 인하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업종별로는 기계류(응답비율 30.7%), 석유제품(25.0%) 등은 일본기업의 수출가격 인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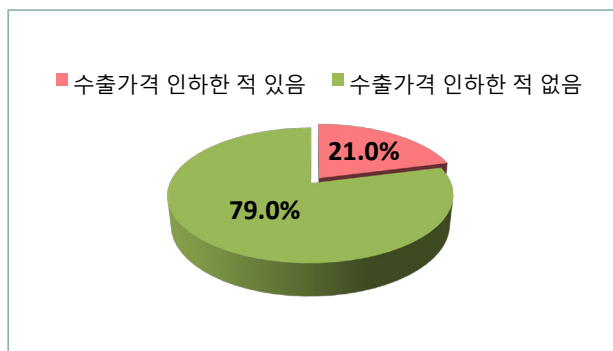
중소기업 피해사례 ② 非일본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

서울소재 중소기업 B사는 작년 연간 약 300만 달러의 정유 관련 기계류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출국 현지 경기 둔화와 더불어 엔저 영향으로 작년 대비 금년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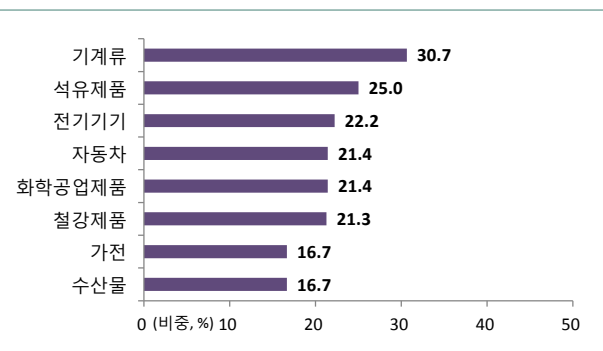
특히 2013년에는 일본 기업이 엔저를 기반으로 수출가격을 소폭 인하하였고 향후 본격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돼 대일본 수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 수산물(16.7%), 가전(16.7%), 철강제품(21.3%) 등은 일본기업의 수출가격 인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일본 동종업계 수출가격 인하 여부(응답비율)



업종별 일본 기업들의 수출가격 인하 여부(응답비율)



- 최근 일본 기업들이 점유율 확대보다는 채산성 중시, 장기투자 확대 등에 나서면서 수출가격 인하에 소극적

*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비, %): -8.3('13.1Q)→ -9.1(2Q)→ -6.7(3Q)→ 0.7(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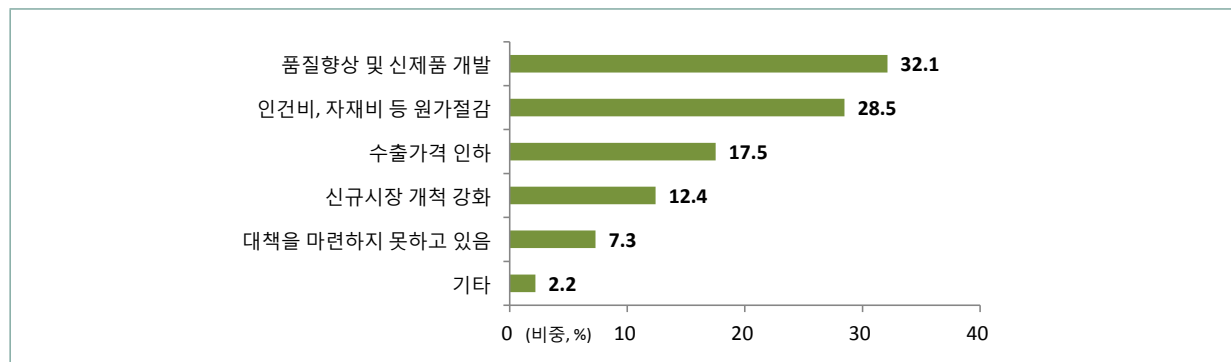
- 엔저의 영향으로 주요 제조업체들의 경영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

* 제조업 경상이익 증감률(전년동기비, %): 21.4('12.4Q)→ 28.3('13.1Q)→ 51.5(2Q)→ 46.9(3Q)→ 49.9(4Q)

- 엔저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할 경우 쉽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비중이 커진 해외법인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

- 응답 업체들은 엔화 약세에 대한 대책으로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 수출가격 인하, 신규시장 개척 등을 주로 고려
 -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대책으로 응답한 기업은 32.1%를 차지하였으며 원가절감(28.5%), 수출가격 인하(17.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 업체의 7.3%는 아직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엔저에 대한 대응방안(응답비율)



5

결론 및 시사점

-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이 주력시장인 수출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 제3국(非일본) 수출주력 기업은 영향이 미미
 - 대일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일본의 수입수요 감소로 대일 수출이 부진
 - 일본 기업들이 채산성을 중시하고 장기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수출가격 인하에 소극적임에 따라 제3국(非일본) 우리 수출기업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엔저 대응책으로 대일 수출기업에 대한 환율안정과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非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R&D지원, 유망시장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 일본기업들의 장기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R&D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문병기 연구원 (6000-5185, bkmun@kita.net)
오세환 수석연구원 (6000-5184, sehwan@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07년 3월 12일 무역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제무역연구원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며 한국무역의 미래전략 제시, 심층적인 무역연구, 각종 정보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무역이 국가경쟁력의 표상인 점을 감안하여 무역진흥의 목표 하에 무역정책 및 전략 개발, 수출입 동향 분석 및 전망, 해외시장 정보제공, 다자간 협상동향 및 FTA 추진전략 개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BRICs 및 신흥시장 진출 전략 연구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실, 기업경쟁력실, 통상연구실, 미래무역연구실, 전략시장연구실 등 5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무역연구원은 각종 연구보고서와 다양한 무역자료를 웹사이트(<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동향분석실

- 수출입, 환율 및 원자재 동향 분석 및 전망
- 수출경쟁력 연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 무역의 구조변화 전망 및 정책제안
- 무역자료실 운영
- 무역연감, International TRADE 발간

■ 기업경쟁력실

- 인력교육 및 공급체계, 기업환경 개선 연구
- 무역지원제도의 평가 및 대안제시
- 신성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연구
- 중소기업 무역정책방향 연구

■ 통상연구실

- 우리나라 FTA 추진전략 및 FTA 효과 실증 연구
- DDA, 보호무역주의 등 주요 통상 현안 연구
- 아시아 경제통합 대비 통상전략 수립
-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 FTA를 활용한 유망 신흥시장(중남미, 아세안 등) 진출전략 연구

■ 미래무역연구실

- 한국 무역의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제 발굴 및 연구
- 한국 무역의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 연구
-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연구
- 차세대 수출모델 연구

■ 전략시장연구실

- BRICs 진출전략의 체계적 수립
- 전략시장 마케팅정보 제공을 통한 진출기회 확대 연구
- BRICs INSIDE 발간
- BRICs 및 신흥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